

참치 시장동향 - 일본

조사자 : 이세호

조사일 : 2014. 5. 13

1. 수출동향

○ 최근 수출실적 및 일본 수입동향

-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4년 2월까지의 참치 수입량은 '13년 2월 대비 물량은 △44.2%, 금액은 △12.7%으로 감소세 지속. 한국의 대일본 참치 수출실적은 4월말 기준 8,401톤(△30.6%), 67,217 천불(△29.5%) 물량, 금액 모두 감소세임. 엔저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 2014년 4월 기준 한국의 참치수출 실적(www.kati.net)

품목	2013.1.1~4.30		2014.1.1~4.30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참치	12,112	95,378	8,401	67,217	-30.6	-29.5

○ 수출증감사유 분석

- 대만과의 경쟁품종인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가 최근 엔화약세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 환율에 의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만산 약 610~630엔/kg, 한국산 830엔/kg~860엔/kg으로 약 25%정도 저렴)
- 또한 최근 일본보다 유럽 및 미국 등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매지역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도 있음

2. 일본시장 동향

○ 품목관련 최신 이슈 및 뉴스

'13년도 카고시마 현내 양식된 흑참치(쿠로마구로)의 출하량이 3,222톤을 달성, 조사를 개시한 '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전국 1위인 것이 수산청 '13년 실적조사에 발표되었다. '13년 현산양식참치는 전국(1만396톤)의 약 3할을 점하고 있다. 현내에서는 10경영체가 24개소에서 조업하고 있다. 현에 의하면 해수온이 높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양식에 적합. 출하수량에 관해서는 1위는 나가사키현 6만 8,000마리, 카고시마현은 5만 2,000마리로 2위. 나가사키현이 1위인 이유로는 현내업자가 외국산 증가에 따라서, 좀 더 크게 키워서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해서임

- '14.4.4 남일본신문사

농림수산성은 18일, 대부분에 합의한 일본과 호주의 경제연계협정(EPA)으로 일본이 미나미마구로에 책정하고 있는 관세를 협정발효 후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제까지 13개국·지역에 걸쳐서 EPA를 체결하고 있으나, 미나미마구로 관세철폐는 처음이다. 현행의 관세율은 미나미마구로가 3.5%다.

- '14.4.18 후쿠이신문사

3. 관련업계 동향

○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최신동향 및 바이어 의견

업체명	업종	업체동향
A사	수입·판매업체	- 현재 대만산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지속적으로 한국산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대부분의 한국산 참치는 일본이 아닌 유럽,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음 - 현재는 참치를 이용한 고추참치, 불고기 참치를 김과 함께 메뉴제안을 통한 소비자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13년 일본 주요 편의점 중 하나인(LAWSON) 5,000 점포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한국참치캔의 경우, 현지 일본의 참치캔은 태국의 생산거점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열세임

4. 시사점

- 한국산 참치의 주 수출어종인 황다랑어 및 가다랑어 등은 원료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고, 해외의 임금상승, 엔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인상 압박이 계속될 전망
- 대만산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한국 참치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제고 및 마케팅을 통한 안전성 홍보 등으로 한국산에 대한 소비층 확보가 필요
- 참치캔의 경우, 일본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태국 등 해외생산거점을 통한 수입을 늘리고 있어 한국산 참치캔의 가격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임
- 업계에 따르면 고추참치 등 참치캔의 경우, 한국의 맛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틈새시장을 지속 공략하면 일본 전체 통조림 시장규모 4억불의 5%인 2천만불 수준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